



논·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 
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!



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 
논·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합니다.

## 2014년 논·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다 13명 사망

### 1 농업용 폐비닐

사례 태우다 80대 남자 사망

2014년 1월 전남 나주시 양모씨  
(85, 남)가 농업용 폐비닐을  
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혼자  
불을 끄려다 사망



### 2 논·밭두렁

사례 태우던 70대 여자 사망

2014년 2월 광주 광산구 나모씨  
(79, 여)가 논·밭두렁을 태우다  
연기에 질식사 사망



실수로 산불을 내도  
무거운 처벌을 받아요!



-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자  
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
-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 
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
→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산 불  
신고는

시·군·구 산림부서, 119, 경찰관서  
산림청 산불상황실 : (042)481-4119



함께하는 산불예방

논·밭두렁 및 쓰레기  
태우기 이제는 안됩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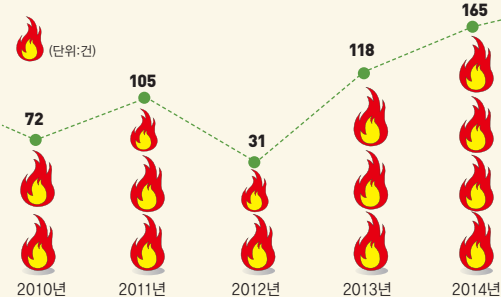


www.forest.go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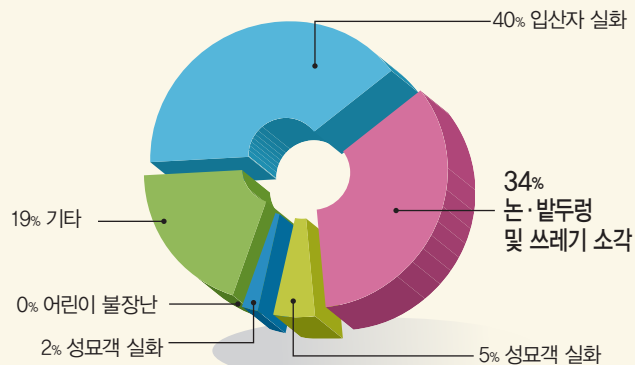
## 논·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!

매년 논·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다  
9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



최근 5년간 논·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불발생현황

전국 산불 발생원인의  
34%가 논·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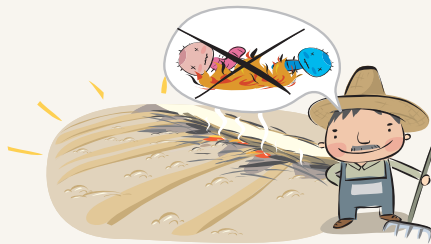


산불 발생 주요 원인



## 논·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!

논·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는 이유



- 논·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“잘못된 고정관념”
- 마른 풀과 비닐 등 영농잔재물을 정리하려는 의도

논·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



- 논·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,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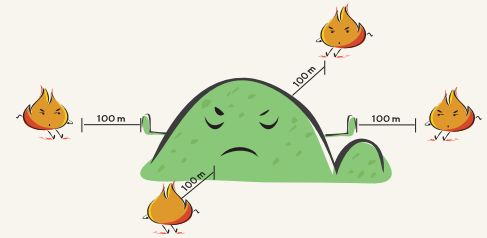
## 농촌진흥청 연구결과

병해충	내 용
도열병	그냥 두어도 벼에 전염성이 없음
흰잎마름병	수로에 서식하므로 불태우기와 관련없음
벼물바구미	산기슭 땅속에서 월동하므로 논두렁 소각과 관련없음
애멸구	논독을 태우는 정도로 방제효과 없음
병충해 천적	불태우기로 해충(11%)보다 이로운 벌레(89%)가 죽게 됨



##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농촌과 산림을 보호합니다!

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



-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풀베기나 수거하여 처리
  - 산림 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※ 산림 인접지역 :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

새해 농사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작업



-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오전에 실시
- 비닐, 영농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처리
- 소각은 마을 공동으로 실시

※ 마을 공동작업시 산불확산에 대비하여 진화차, 진화장비 등 배치